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6월 후원미사는 17일, 7월 후원미사는 15일, 8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9년 4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4,838,979	전월아월금	56,021
지 로	2,259,450	우리은행	5,410,040
국민은행	3,451,000	하나은행	921,110
조흥은행	75,010	신한은행	760,100
외환은행	372,500	제일은행	105,010
농 협	999,000	기업은행	225,000
우 체 국	30,000	교구보조	230,759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벳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교내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000,000	장기수선총당금, 운영관리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4,825,000	잔액(이월금)	70,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9. 05 / 제35호

펴낸날 2019. 5. 20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지난 성주간을 보내며 한 가지 결심이 생겼습니다. 책장에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성무일도서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성직자가 성무일도를 바치는 게 당연한데 묵혀두었다니요? 네, 지난 몇 년을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무일도를 바쳤던 것입니다.

두꺼운 성무일도를 다시 꺼내어 흠어져 있는 책갈피들을 이리저리 옮기며 기억을 더듬어 제 순서에 맞추어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편기도가 끝나면 다시 책갈피를 옮겨 나머지 기도부분을 찾고 즈가리야의 노래, 성모의 노래 부분을 또 찾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 옛 기억이 다시금 되 살아났습니다. 얇은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소리, 손에 닿는 감촉들, 그리고 오래된 성무일도 기도서의 색 바랜 종이를 보면서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 액정으로 보던 성무일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당연시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편리함과 편안함에는 그림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떠날 때 더 이상 전국도로지도가 뒤적이거나 근처에 도착해서 길가는 행인에게 차창을 내리고 목적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노랫말을 외우려 반복해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좋은 벗에게 손 편지를 써서 한참동안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편해졌고, 훨씬 더 빨라졌으며, 쉬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사이 우리들은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노래방기계가 없으면 좋아하는 노래여도 가사를 잊게 되었고, 문자메시지마저도 바로 답신이 없으면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리니 과정의 번거로움이 주는 즐거움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지면서 편안함을 당연시 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것에 의존하게 되어 급기야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정이 주는 불편함이 제거된 일상은 공허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거대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불편한 자극을 주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우리들의 신앙도 시련과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성장하고 강건해 지는 까닭입니다.

항상 감사한 후원자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성월을 보내면서 우리들 일상의 고단함과 번거로움이 주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감사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이주노동자상담실 소식*



이주노동자상담실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노동 상담(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등), 의료상담(외래 진료와 입, 퇴원 동행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총18개국, 임금 25건, 의료 106건, 쉼터 14건, 국민연금 1건, 한글반 11건, 기타 32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경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 질환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CMC, 라파엘클리닉과 같은 병원 및 의료 단체와의 연계로 지원을 하지만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없어 몸과 마음이 힘든 이주노동자 환자들을 위하여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며 치료받고 하루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마고네공부방 소식*



학습 이외에도 마고네 공부방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지난 달 '뛰노는 건강 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북구 보건소 후원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씩 진행되며 다양한 도구들로 신나는 신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방 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학생들의 활동범위가 적어서 힘들어 할 때도 있었는데 그동안 쌓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고려하며 실내, 실외장소를 모두 선정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마고네 공부방 학생들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강원도산불피해지역 위문품보내기

경찰박물관 견학 ▶



공동체 소식

국가별 공동체의 성삼일 & 부활대축일 소식*

이주사목위원회 국가별 공동체에서도 기쁜 부활을 준비하고 맞이하였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는 'Senakulo' 라고 그리스도의 고난, 열망, 죽음을 표현하는 종교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필리핀 공동체도 부활 대축일을 일주일 앞둔 4월 14일, 헤화동 성당에서 봉헌된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에서 필리핀 공동체 신자들이 수난 복음을 연극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미사 전 필리핀 공동체센터(성북동)에서 헤화동 성당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을 재현하는 성지행렬예식을 하였습니다.

베트남 공동체도 성삼일 전례가 진행되었고 파스카 성야 미사 후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음식 나눔을 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삼일



Senakulo(파션오브크라이스트)공연



성삼일



파스카 성야 미사

공지사항 세계 이민의 날 변경의 건 소식*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 이주사목국에서 "더 이상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제 105차 세계 이민의 날을 9월 29일 주일에 지내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이민의 날을 5월 1일(주일인 경우)이나 그 전 주일에 지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서도 변경된 세계 이민의 날에 맞추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과 함께 기도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